

장애 초월한 붓끝... “세상에 온기 채워넣고파”

2017 희망을 쓴다

장애인 화가 박동신씨

선천적 왜소증 그림으로 승화
무료 전시회 ‘월계관의...’ 화제
오른쪽 마비되자 왼손 그림

“새해에는 건강이 더 나빠지지만 알았으면 합니다. 올 해에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그려 전시회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두려움에서 용기를 배우고, 부끄러움에서 자신감을 얻고, 절망에서 희망을 낚는다는 역설의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화가 박동신(57)씨.

평생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오고 있는 그는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왜소증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한 그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그는 결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때 미술을 시작해 예술가의 길에 접어들었다.

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그는 젊었을 적에는 화실을 운영하며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다. 그러다 자신만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화가로 등단,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영양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고향집을 찾았다가 마당 장독대 근처에 가득 피어난 맨드라미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자 이십 년도 넘게 맨드라미만 그리고 있다. 맨드라미에 폭 빠져 있는 그는 “아무리 많이 그려도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광주시 북구 풍향동의 작업실에서 작품활동 중인 박동신씨. 그는 최근 우측 반신마비로 인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며 “나의 붓끝에 피어나는 ‘열정의 화신’ 맨드라미를 통해 이웃들의 삶에 온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 맨드라미는 단순한 꽃이 아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상징이다. 항상 맨드라미 옆에 등장하는 달은 몸이 불편한 아들을 걱정하며 정화수를 따놓고 달을 향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나중에서야 등장한 나비는 불혹의 끝자락에 국제결혼으로 얻은 그의 하나뿐인 희망, 딸을 의미한다.

그는 최근 건강이 악화하면서 오른쪽 몸에 마비증세까지 나타났지만 곧바로 왼손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익숙지 않지만 불편한 몸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비우고자 노력한다”며 의욕을 보인다. 그는 “왼손으로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면 아직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혔다.

있는 그의 초대전 ‘월계관의 사랑’은 많은 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무료 전시회를 연 그는 “저에게 도움을 주는 지인들께 보답하는 길은 오직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 그림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며 “축는 날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몰림 12:37
해질 17:35 달림 00:30

맑아진 공기
큰 추위 없이 야외활동하기 좋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3/11	보성	4/10
목포	5/11	순천	5/11
여수	5/10	영광	1/10
나주	1/11	진도	3/10
완도	7/10	전주	3/11
구례	-1/11	군산	2/11
강진	5/11	남원	2/11
해남	6/11	축산도	3/11
장성	1/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면바다	동~남동	1.0~3.0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5
	면바다(동)	북동~동	1.5~3.0
남해	면바다(서)	북동~동	2.0~4.0
	면바다(서)	북동~동	2.0~4.0

◇생활지수

+	보통
0	뇌졸중
-	보통
+	감기
+	관심
+	체감온도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32	07:42
		12:53	20:05
여수		08:25	02:33
		21:26	14:54

◇주간 날씨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	☁	☁	☀	☀	☀	☀
2/11	5/9	3/7	-2/5	-3/2	-3/3	-1/5

포근한 새해 첫 주말...눈 대신 겨울비

중국에서 불어오는 온난한 공기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은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미세먼지도 많이 사라져 야외활동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7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차차 흐려지고, 낮에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밤부터는 남해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휴일인 8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1~2mm)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4도~0도, 최고 5도~7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대 수의예과 경쟁률 12대 1...조선대 치의예과 10대 1

광주·전남 대학 정시 마감...취업 유리한 보건계 인기 여전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이 201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취업에 유리한 보건계열 경쟁률 상승세는 여전했다. 전남대는 ‘2017학년도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1687명 모집에 6473명이 지원해 3.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도 경쟁률은 3.18대 1이었다. 광주캠퍼스는 1365명을 모집(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24명 포함)하는데 5145명이 지원해 3.77대 1을, 여수캠퍼스는 322명 모집에 1328명이 원서를 내 4.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의예과(12.4대 1)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고 의예과 일반전형(3.98대 1), 해양바이오식품학과(6.0대 1), 에너지자원공학과(5.0대 1), 환경에너지공학

과(4.57대 1) 등 취업 전망이 밝은 이공계과 경쟁이 치열했다. 조선대는 1573명을 뽑는데 5359명이 지원, 3.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군 치의예과(일반전형)이 10대 1로 가장 높았고 의예과는 6.59대 1로 뒤를 이었다. 광주대도 282명 모집에 1047명이 지원, 평균 3.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컴퓨터공학과(13.0대 1), 보건행정학부(8.20대 1)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호남대는 190명 모집에 810명이 지원, 4.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프라인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미래자동차공학부는 7명 모집에 45명이 몰려 6.42대 1을 기록했다. 간호학과도 8.3대

1로 전통적인 강세를 이어갔다. 동신대는 318명을 뽑는데 1411명이 지원, 4.4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의예과(11.35대 1), 물리치료학과(9.43대 1), 유아교육학과(8.25대 1) 외에 프라인 사업과 관련된 전기공학전공(8.8대 1) 등의 경쟁률도 높았다. 목포대는 606명 모집에 2318명이 지원, 3.83대 1을 기록했고 광주교대(1.80대 1), 전주교대(2.18대 1)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대는 963명 모집에 3968명이 지원, 4.12대 1의 경쟁률(전년도 3.74대 1)을 보였고 고려대는 1137명 모집에 4684명이 원서를 내 4.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균관대는 921명을 모집에 5092명이 몰려 5.53대 1을 기록했고 연세대 4.83대 1, 이화여대 4.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 일반계고 합격자 발표

광주시교육청은 5일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전체 지원자 1만4368명 중 1만 4227명(정원외 159명 포함)이 합격하고 141명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탈락자는 전년도 1만 6665명 중 377명이 불합격했던 것에 견줘 다소 감소했다. 내신성적을 토대로 한 합격선은 94.03%로 전년도(90.1%)보다 낮아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원자 규모가 전년도보다 2297명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순천 지역 평준화 고교에 원서를 낸 6744명 모두 합격했다. 전남은 학생 수가 줄면서 지원률이 전년도(98.0%)보다 감소한 94.3%에 머물렀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서구, 복지 사각지대 가정 찾아 생계 지원

광주시 서구는 이달 말까지 주소주자의 실제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4인 기준 335만원)의 175% 이하이고, 금융재산 보유액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115만원·의료비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정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사망·행방불명 등으로 가족 가운데 주소주자를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상지를 입어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세대를 돕는 제도다. 서구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지원하려고 긴급지원 안내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붙이기로 했다. 동주민센터 복지통장, 복지협의체 회의를 통해서도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주위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광주 서구 복지급여과(062-360-7630)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태영21 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 인공신장실(아간투석) ▶ 외과인원차 유지 의료기관
▶ 종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입원실(46 bed)
▶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신세계 백화점
유스퀘어 터미널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임로 392(월곡2동 679-3)